

제 목	국 문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련행위와 의사진단 질병이환율과의 관계		
	영 문	Health Related Practices and Morbidity Rate by Doctor's Diagnosis Among Adult in Rural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송 주복, 정 갑열, 신 해림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영 문	Jue Bok Song, Kap Yeol Jung, Hai Rim Shin Dept. of Prev. Med. Coll. of Med., Dong-A Univ.		
분 야	역 학	발 표 자	송 주복(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이 연구는 농촌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가 진단한 질병이환율과 설문지에 의한 자가진단 질병이환율을 비교하고,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건강관련행위(Heath Related Practice)중 흡연, 음주, 운동, 적정 수면, 적정 체중과 의사진단에 의한 질병이환율과의 관련성을 비교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조사 대상은 1993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상남도에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함안군 함안면의 주민 중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내용을 예비조사를 통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보건학을 전공하는 10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수 차례에 걸쳐 면접교육을 시킨 후 신체검사를 하는 날 미리 개인면담을 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항목은 일반적인 사항 (연령, 성, 학력, 결혼상태, 직업, 직종 생활환경, 경제적 수준), 기호습관(음주 및 흡연에 대한 경력, 횟수, 습관), 병력사항 등이었다. 신체검사는 대상자들의 면접이 끝난후 생물학적인 사항으로 신장, 체중,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검사,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와 심전도, 흉부 X-선 검사도 같이 실시하였으며, 가정의학전문의가 진료를 하였다. 진단은 추후에 모든 검사가 나온 뒤에 하였다.</p> <p>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20세 이상의 전체주민 3,221명(남자 1,568명, 여자 1,653명)중에서 896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참여율은 27.8%였다. 조사대상자 896명에서 설문조사와 신체검사 중 한 종류의 조사에만 참여한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885명(27.5%)만이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자들의 41.7%는 남자(369명)였으며, 58.3%는 여자(516명)이었다. 농촌지역에서의 조사였기에 20대와 30대는 적은 반면 50대 이상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72.3%를 차지하여, 평균연령은 55.9세였다. 분석은 카이 제곱 검정, 일치율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였다.</p>				

3. 연구결과

- 1) 건강관련행위는 남자에서 ①적정 체중(62.1%), ②적당한 음주(57.5%), ③적정 수면(50.1%), ④비흡연(21.7%), ⑤육체운동(19.8%)의 순서로 실천율이 높았고, 여자는 ①적당한 음주(97.3%), ②비흡연(84.7%), ③적정체중(57.8%), ④적정 수면(45.0%), ⑤육체운동(9.9%)의 순서로 실천율이 높았다.
- 2) 의사 진단에 의한 신체 기관별 질병의 빈도는 ①소화기(22.1%), ②순환기(16.4%), ③호흡기(4.9%)의 순서로 나타났고, 질병별로는 ①고혈압(15.3%), ②당뇨병(8.5%), ③위염(8.5%), ④간질환(8.1%), ⑤퇴행성 관절염(6.2%)의 순서로 나타났다.
- 3) 의사 진단에 의한 주민들의 질병이환(남:50.1%, 여:50.0%)과 설문지에 의한 자가 진단 질병이환(남:33.3%, 여:27.5%)과의 일치율은 남자에서 Kappa 계수가 0.21, 여자에서 0.22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 4) 다섯 가지 건강관련행위중 운동여부(OR :남자(2.26), 여자(2.15))를 제외한 네 가지 건강관련 행위는 질병이환율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 5) 건강관련행위지수를 high, medium, low의 3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강관련행위지수가 낮아질수록 질병이환의 상대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4. 고찰

농촌지역 20세이상의 성인(평균나이: 55세)의 설문지에 의한 자가진단 질병이환율은 의사가 진단한 질병이환율에 비해 낮았고 그 일치율도 낮았다. 이 결과로 보아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실태 조사과정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대상 농촌지역의 건강관련행위의 실천 정도는 92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연구에서의 40-59세 전국평균에 비해서 금연율과 적정한 음주의 실천율이 낮았다. 연구대상 농촌지역은 1인당 평균 2가지 정도의 낮은 건강관련행위 실천율을 보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각각의 실천행위는 운동여부를 제외하고는 질병이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건강관련행위지수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건강관련행위지수가 낮을수록 질병이환의 상대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질병별 분포는 고혈압, 당뇨, 퇴행성 질환 등 만성질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사망원인중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건강관련행위의 실천정도가 유의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